



루마니아 선교 편지

2025. 11. 21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

삶의 풍량이 거셀 때도 있지만 늘 주님께 집중하며, 깊어 가는 가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루마니아 소식 드립니다.

♣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마리아나’ 를 위한 기도

펠디와라에서 7학년까지 다니다 이탈리아로 이주했던 ‘마리아나’가 8년이 지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리지만 유독 주님을 깊이 의지하며 매 주일 찬송시를 지어 주님을 찬양하던 아이였지만 심한 우울증과 함께 식어버린 믿음으로 고향으로 온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막혀 돌아온 이후, 집에서 나오지 않고 은둔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귀한 추억을 품고 매주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펠디와라 교회 일부 청소년들도 아예 서유럽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귀해져 가는 서유럽 지역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펠디와라 교회의 추수감사절

많은 루마니아 교회들이 별도로 추수감사절을 정해 지키지 않지만 펠디와라 교회는 10월 19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추수를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펠디와라 전역을 돌며 전도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세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특별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들을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새로 나오게 된 청소년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아이들도 있어 감사했습니다. 특히 울여름 세례를 받은 청소년들이 전도한 친구들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청소년도 있어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은 펠디와라에서 전도하는 날이어서 디누 전도사와 펠디와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인사도 나누고 길거리에서 그리고 가정을 찾아가 복음도 증거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지만 복음을 말은 자로서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늘 새롭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도해 왔기에 대부분의 펠디와라 주민들이 저희를 알지만, 머뭇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혼 추수의 감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 주일학교에 씨를 뿌리는 기쁨

아라치 교회의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사역엔 많은 인내가 필요함을 늘 실감합니다. 주일학교 모임이 있는 토요일엔, 교육에 거의 관심이 없는 집시 부모님들의 여전한 무관심으로 여러 아이들이 아침 10시가 넘어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기에, 매주 이들을 깨우기 위해 그들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버려진 개들이 많아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르면 일어나 교회로 나오기에 계속해서 깨우곤 합니다. 지난주엔 아라치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심방과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들을 만나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나누고 아이들을 만나 가정환경을 살피는 일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라치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펠디와라 교회의 조금 약해진 주일학교를 위해 계속해서 일주일에 3번 모임을 갖고 이 시간 전도를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조금씩 더 모아 악기를 가르쳐주고 일일 수련회 등을 개최하면서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더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오게 되고, 여러 아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주일학교에 새롭게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전도, 그리고 양육이 필요하지만, 주일학교는 사역자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함께 미래를 꿈꾸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 사역자들의 기도 공동체

여성 사역자들의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내 이명자 선교사가 2년 전 여성 사역자 수련회를 가진 이후 지속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기도로 잘 무장하길 소망합니다.

목회자 기도 모임은 매주 목요일 모이는데, 목회자로서 기도에 마음을 쏟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함께 목회자들이 주일학교 선물도 교회들에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와 감사로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교회 및 주일학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보기도(도고)팀의 단기선교

12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서울의 한 중보(도보)기도팀이 브라쇼브에 머물며 기도하며 교회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계획입니다.

♣ 기도제목

1.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 성도들이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2. 섬기는 주일학교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3. 브라쇼브 지역의 여성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교회를 잘 섬기도록
4. 12월에 오는 중보기도팀을 통해 이곳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 총회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경진, 예진)선교사 드림